

2023 새해 이렇게

명현관 해남군수

“예산 1조 시대 걸맞는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이끌겠다”



국비 3414억 확보...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탄력 지역화폐 1300억 발행·전국 첫 농업인 기숙사·권역별 관광 개발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인 5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의 위상에 걸맞게 내실있고 속도감 있는 예산운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올해 최 우선 과제를 군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경제활성화에 두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남만의 전략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 군수는 올해 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 증가한 8721억원을 편성해 주력사업인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2%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일 경제와 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5년 연속 1조원 이상 예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3414억원 확보하면서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관련한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명 군수는 먼저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로 끌어주는 상생협력, 읍면간 균형있게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는 “누적판매액 4490억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300억원 발행 규모를 유지해 흔들림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면단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을 통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지역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명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 주력산업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특색있는 콘텐츠 확충으로 어린이 공룡과학 체험관 개관과 땅끝곰길랜드 조성,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마한문화권 정비를 통한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와 2025 개관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휴먼 임팩트 건설도 저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28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청년 공공임대주택건립,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 등 인구감소 대응 10개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개관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는 역점 추진 사업인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과 교육재단 설립, 운영을 통한 교육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붐을 일으켜 해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특히 해남군은 지난해 해남형 ESG 비전선포식을 갖고 범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이를 더욱 확산해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능한 군정으로서의 균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정의 전 분야에 해남형 ESG 경영을 확산하고, 청정환경을 지키고(E),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받는 투명행정(G)을 정착시키는 원인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 덕분에 역대최대의 균형성과로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다”며 “국내외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유지경영(有志竟成)의 자세로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향해 다시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지역경제 싹틔줄 소상공인 살린다”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지역화폐 800억 발행 내수 회복 총력

목포시가 지역경제의 싹틔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 확대 운영하는 사업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담신용보증재단 출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시는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금의 예산을 확충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강화한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업소당 3000만원 이내 용자에 대한 연 3%의 이자를 1년간(최대 90만원) 지원하던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최대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하는 등 효평을 얻고 있는 목포사랑상품권은 800억원 규모(지류형 300억원, 모바일,

카드형 500억원)로 발행한다. 특히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상품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부터는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QR결제형)을 도입한다.

이 밖에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 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홍보·마케팅 교육인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는 ▲착한 가격 업소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골목형 상점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전라남도 공공 배달업 ‘떡깨비’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목포=문봉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건영그린텍, 7천만원 상당 마스크 기부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목포 대양산단에 있는 (유)건영그린텍이 7000만원 상당의 KF94 마스크 6만2000여장을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기탁했다.

이 단체에 기부한 것만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전달받은 마스크는 도내 취약계층과 섬 주민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건영그린텍은 지역의 대표적인 마스크 제조·판매 기업이다. 지난해에도 전남도청 등에 마

스크를 기부했으며 2020년부터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범택 건영그린텍 대표는 “최근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더욱 힘든 장애인과 취약계층, 섬 주민 등의 마음에 약소하더라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흥민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기부받은 마스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섬 주민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장애인 등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첫째부터 1천만원...진도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출생 즉시 300만원·7년간 생일마다 100만원씩...셋째는 2000만원

진도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금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용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다.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아이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박차

전복·해조류 등 활용, 치유 효과 있는 메뉴 등 개발

완도군은 지난 3일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밥상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와 ‘색깔 보리 톳밥’을 메인 메뉴로 개발해 2021년 11월 신지면에 소재한 모래들 식당을 해양치유밥상 1호점으로 지정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에는 연간 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양치유밥상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힐링 음식으로 호평 받고 있다.

이번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 방향은 지역 농수특산물인 전복과 해조류, 우자, 비파를 활용한 치유 효과가 있는 메뉴,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특화 음식 개발에 있다.

해양치유밥상 1호점에 이어 2호점은 횡집에서 전복과 회를 단품 메뉴화하고, 레시피 다양화, 가격 차등화 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해양치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및 해수욕장 이용자가 바닷가 등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과 포장을 차별화하고, 여행 트렌드와 고객 성향을 겨냥한 도시락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전남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메뉴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음식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에서도 완도만의 치유 음식을 개발하는 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SNS에 새해 소망 달고 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받으세요

17일까지 100명 선정

진도군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진도군 공식 인스타그램 SNS 이벤트를 개최한다.

진도군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게시글에 2023년 새해 소원을 댓글로 남기고, 게시글의 좋아요, 진도군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 친구소환까지 완료한 참가자에게 명량해상케이블카 탑승 교환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도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원 등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새해 소원 말하기 이벤트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랜덤으로 선정해 명량해상케이블카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진도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1월 27일까지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계묘년의 힘찬 시작을 진도군 SNS와 함께 소원성취 하시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이벤트로 보배섬 진도의 매력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실업급여 1억4000만원 부정수급 적발

목포고용청 “39명 일용직처럼 속여” 건설업자 등 41명 적발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고용보험법 위반)한 혐의로 건설업자 A(60)씨와 브로커 B(63)씨, 부정수급자 39명 등 모두 4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허위근로자 3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A씨가 시공한 전남 구례의 건설현장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속여 1억 4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모해 A씨의 고용인

전남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 지인 등을 허위근로자로 모집 및 가담시키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9명에게는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추가징수액 등 총 5억4000여 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했으며,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마을 신앙숲’ 당산림 세계유산 등재 나서

신안군이 섬 지역 당산림(당림)에 대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당산림은 마을의 신앙숲을 대표하는 산림이다. 마을 자연경관을 드높이면서 마을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장소로 지역 문화가 공존하면서 생태, 문화, 역사의 기록을 간직한 살아있는 보물창고이다.

군은 당산림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신안의 우수한 당산림 자원을 발굴해 보전·관

리하고 향후 신안 당산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군은 2021년 3월부터 신안 흑산권, 남부권, 중부권 및 북부권 당산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당산림 DB 구축, 도서생물 자원화, 생태계 서비스 활용 등을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당산림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매년 신안 당산림 생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